

## 콩쥐와 팥쥐

옛날 어느마을에 콩쥐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콩쥐는 어릴적 어머니를 여위고 아버지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런 어느날 콩쥐에게 즐거운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에게 새로운 어머니가 생긴것입니다. 게다가 팥쥐라는 이름의 언니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즐거움은 곧 사라져 버렸습니다. 새로운 어머니가 오고나서 집안일과 모든 일이 그녀의 차지가 되어버리고 그녀는 친구와 놀수도없고 좋아하는 책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팥쥐는 항상 빈둥거리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팥쥐를 보면서 콩쥐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울곤 했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던 어느날 새로운 어머니는 콩쥐에게 「오늘은 마을축제가 있어서 팥쥐와 외출할테니까 너도 집안일을 끝내고 밭일까지 끝나면 나가도록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콩쥐는 더럽혀진 부엌과 집안을 보면서 글썽글썽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그녀도 축제에 가고싶었지만 그렇게는 할수없었습니다. 마을의 거리는 대성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마을에 나라의 왕자님의 화려한 행렬이 지나는 것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콩쥐는 한낮을 지나 산에 밭일을 하러 갔습니다. 한데 밭은 깨끗해져 있었고 잡초따위는 어니에도 볼수없었습니다. 신기한 얼굴로 보고있자 소가 다가왔습니다. 「너도 빨리 축제를 보러 다녀와. 여기 일은 벌써 끝났어. 항상 네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것을 보고 있었어. 불쌍하기도 하지. 오늘은 안심하고 즐기렴.」 하지만 콩쥐는 슬픈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런 몰골로는 갈수없어」콩쥐의 더럽혀진 얼굴이며 모습을 보고 소는 「네가 마을 아랫쪽으로 걸어가면 한노파를 만날 수 있어. 그 노파가 도와줄꺼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들은대로 산에서 내려와 마을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상냥한 얼굴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콩쥐를 데리고 사람이 지나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콩쥐의 앞에서 주문을 외우자 그녀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본적이없는 아름다운 여인이 할머니 앞에 있었습니다. 콩쥐는 즐거운 얼굴로 축제에 갔습니다. 그때 왕자님의 행렬이 그녀의 옆을 지났습니다. 콩쥐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을 뺀 왕자님은 그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을 궁전에 초대하고싶소. 이름은」 그것이 계기가된 콩쥐와 왕자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어 갔습니다.